

조용범 차관, 아동·노인돌봄 협동조합 방문 ‘따뜻한 공동체’ 실현의지 표명

- 협동조합 현장 활동가 목소리 경청 및 취약계층 돌봄 종사자 격려
- '27년 협동조합 예산안 대폭 확대(29 → 818억원)로 아동·노인 돌봄 등 공공서비스 활동 지원 강화 및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적 지원 확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9월 22일(화)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일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 현장을 돌아보고, '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에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동체 활동을 이어나가며 돌봄 서비스에 힘써주고 계신 협동조합 현장 활동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폭 확대된 내년도 협동조합 예산안*과 정책방향을 현장에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억원) : ('26) 29 → ('27안) 818, +2,692.2%

< 아동·노인돌봄 협동조합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6.9.22(화), 15:30 ~ 16:30 / 성미산 마을* 내 아동·노인돌봄 협동조합
- * 서울 마포구 성미산 일대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비영리 등 70여개 네트워크 조성
- 참석자 : (정부) 기획처 차관, 통합성장정책관, 상생협력전략과장
(유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진석 협동조합본부장
(협동조합) 올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¹⁾, 신촌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²⁾ 등

* 1) 노인 방문요양·간호·목욕서비스, 치매인지활동형서비스, 병원·외출동행서비스 등 수행

2) 국내 최초 협동조합 방식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94~), 부모·교사조합원 공동 운영

먼저, 조 차관은 “최근 양극화, 지방소멸,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협동조합은 지역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주체인 협동조합이 더욱 성장하여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의 AX·DX 및 금융 지원 등 스케일업, 전문인력 양성,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 차관은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울림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전화·대면 상담을 통해 **방문요양·간호·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현장 활동을 살펴보고, **돌봄 종사자**분들께 **추석 명절**떡을 전달하며 격려하였다. 아울러, 성미산 마을 내에서 협동조합과 복지 NGO((사)마포희망나눔) 등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노인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올해 상반기에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미술, 놀이** 등 **돌봄 활동기록**이 담긴 책자를 나누며 인사를 전하였다.

이어, **신촌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어린이들**의 **추석명절 놀이** 활동을 참관하였다. 이와 함께, 동 기관이 '94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이래, 학부모 및 교사 조합원들이 협력하며 **보육사업 발전**에 힘써온 노고를 격려하였다.

아동·노인돌봄 서비스 현장 순회를 마친 조 차관은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도 협동조합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정윤 (044-214-1750)
		담당자	사무관	배준혜 (jhbae10@korea.kr)
			주무관	유다영 (dayoung930@korea.kr)